



검은 재앙 4일 오후 여수시 신덕마을 해안가에서 방제인력이 물을 본 사해 바위에 붙은 기름때를 벗겨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바다에 기름 쏟고 가슴엔 불지르고

여수 기름 유출 주먹구구식 방제 속터지는 주민들

여수 기름 유출 사고로 양식장·해안가를 덮친 기름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어민·지역주민들이 두통, 호흡 곤란, 구토 증세 등을 호소하고 있다. 방제 작업에 나선 주민들을 상대로 한 방제 규격은 커녕, 방제·보호 장구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0년 전과 달라지지 않은 방제 작업=여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4일이 지나면서 수천 명의 방제 인력이 동원, 기름 제거 작업에 나섰다. 방제 장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수시 신덕마을 주민들은 기름 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흡착포 등 기름 제거용 물자가 제 때 공급되지 못하면서 현 옷·양동이 등으로 기름 수거에 나서다가 하면, 마스크·방제복조차 갖추지 않고 휘발성 원유 성분으로 고스란히 노출된 채 작업하고 있는 형편이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해경에 방제 물자 지원을 요청했는데, “조금 있다가 오라”고 하는가 하면, 여수시에서는 “해경으로 가라”고 돌려보내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여수시는 3일 현재 방제 작업에 4861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악취 속에서 기름 구덩이에 빠져가며 작업하고 있는 실정으로, 방제복·비옷·고무장갑·마스크 등 방제 장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더욱이 해경 등은 방제 작업에 참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작업 안전 수칙을 알려주지도 않은 채 무작정 현

장에 투입하고 있다는 게 마을 주민들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휘발성 원유 성분을 고농도로 오래 들이마실 경우 급성인후두염이나 기관지염 등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 발암 위험도 있다는 점에서 방제 장비를 갖추고 기름 제거 작업에 나서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기름 유출 등 해양 오염 사고 발생에 따른 ‘긴급 방제 실행 계획’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주민 이모(65)씨는 “기름 유출 등 대형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매뉴얼이 있는데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 등 자원봉사자들이 고농도의 원유와 나프타에 노출돼 구토·어지러움 증세를 호소하는데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두통, 구토 증세를 호소하는 주민들도 늘고 있다. 주민 김모(62)씨는 “유출된 기름 제거 작업을 하면서 이틀째 두통약을 먹었다”면서 “기름 제거 작업을 했다가 병원 치료를 받는 주민들도 많

다”고 말했다. 작업 중 두통,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자원봉사자들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까지 주민 등 모두 39명이 두통·구토 증세를 호소해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사고수습대책위원회 측은 파악했다.

여수 시민단체인 ‘여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앞으로 방제작업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상 문제를 예방하는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초동 조치 부실, 방제 당국 못 믿겠다=주민들은 송유관 총물사고 직후 사후 조치만 신속하게 이뤄졌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민 박모(43)씨는 “사고 다음날인 1일 오후 2시 동네 주민들과 1.5t급 FRP 어선을 타고 사고 현장에서 3개의 송유관 중 1개의 관에서 줄줄 새고 있는 유성혼합물을 목격했다”면서 “사고 발생 이후 24시간이 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주민 이모(42)씨는 “송유관이 새면 바지선을 띄워서라도 바다에 유출되는 원유를 받아내야 했다”며 “도대체 해경과 GS 칼텍스 측은 사고 직후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



기름유출사고 닷새째인 4일 여수시 낙포동 원유2부두는 여전히 총물로 파손된 송유관이 그대로 방치돼 있으며, 인근 바다에는 방제가 미처 안된 기름띠도 눈에 띄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기관 관계자들 방제작업하다 시간되면 칼퇴근 일하러 온건지 봉사점수 받으러 온건지 헛갈려”

신덕마을 청년부회장

“해경에서 2주일 정도면 방제작업이 마무리된다고 발표하던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4일 여수시 신덕동 신덕마을 앞 선착장에서 만난 송재석(42) 신덕마을 청년부회장은 마을 주민들과 선착장 콘크리트 벽면에 묻은 검은 기름때를 제거하던 중 목소리를 높이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경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주 정도면 방제작업이 끝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두 달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누가 알겠나. 총탄탄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를 보고도 이런 말이 나오니까”라고 화를 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이후 긴급 방제 작업 등 임시 조치가 끝나더라도 바다 생태계가 원상태로 회복되는 데는 한참 더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데도, 지금 ‘방제 작업 마무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했다.

그는 특히 “해경 등 유관기관에서 방제작업을 오는데, 일하러 온 것인지 아니면 봉사점수 받으러 온 것인지 헛갈릴 정도”라며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곧장 떠나는 사람들과 달리, 생업 터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려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해경이 이전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다. 해경이 2주일 뒤 방제작업 마무리 선언을 언급했는데, 이때 마을 앞바다 오염물질이 실제로 완벽하게 제거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만·간 조사를 이용, 바닷물 시료를 채취해 보관 중”이라고도 했다. 해경의 방제 작업이 정말 완료됐는지 따져 보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하남산단 동부대우전자 물류창고에서 불

냉장고 등 태워 5억 피해

지난 3일 밤11시50분경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하남산단 4번로에 위치한 동부대우전자 물류창고에서 불이 난 것을 직원 구모(34)씨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화재는 창고 2만1000㎡ 중 6600㎡

를 태우고 소방차 48대, 대원 294명이 출동한 끝에 다음날 새벽 3시에 완전 진화됐다. 이 화재로 내부에 보관 중이던 냉장고 및 세탁기 부품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이 난 창고는 생산라인과는 상관 없는 부품 물류창고로 전국 대우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사용하는 냉장고·세탁기 등의 부품을 보관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제팀 직원인 구씨가 당직근무 중 화재경보기가 울려 119에 신고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목포서 모텔 객실 불... 60대 남성 숨져

불이 난 모텔 객실에서 번개탄과 함께 60대 남성이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오전 7시20분경 목포시 상동 천보(60)씨 소유의 S모텔 3층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5층 건물 1381㎡ 중 3층 객실 40㎡가 소실되고 700㎡가 그을음 피해를 입는 등 소방서 추산 3000만원의 재

산피해를 낸 뒤 30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를 진화한 소방당국은 객실에 투숙해 있던 60대(추정) 남성과 다 타버린 번개탄 3개가 든 쓰레기통을 발견했다. 숨진 남성의 기관지에서는 호흡기 흡입된 그을음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CCTV 보던 경찰에 딱걸린 새벽 마트 도둑들



생다발

○~심야시간 동네마트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던

20대 남성들이 광주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에게 발견돼 철창행 처분을 당했다. 숨진 남성의 기관지에서는 호흡기 흡입된 그을음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해 침입하려 했으나, 마트 인근 CCTV로 지켜보던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이 경찰에 연락해 현장에서 불발했다는 것.

○~경찰은 임씨 등을 추궁해 지난 달부터 5차례 절도행각을 벌인 사실을 확인했으며, 두명 모두 10차례 이상 절도 전과가 있는 점을 들어 구속 수사할 방침.

/김영희기자 kimyh@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희망공인중개사
고객님의 성공을 희망합니다

상가/건물

- ▶서구 치평동 신축건물 매 75억
- ▶화정동 교원공제부근 1층상가 225㎡ 매 12.3억(보1.3억, 월600만 유영프랜차이즈 임점)
- ▶8층사우나건물-일부층 원룸 매 17.5억(보8천,월8백,용9.5억 포함, 직영수입 월천만)
- ▶월계동LCA타워 2층상가 960㎡ 매 19억, 분할가(대형병원, 학원, 외식프랜차이즈 적합)
- ▶서구 아파트상가 1,800㎡ 매 10억(보 1.1억, 월610만, 용5.9억포함)
- ▶신창동 상가건물 매매 27억, 매매 15억

대지/전답

-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대지 750㎡ 매매 25억
-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대지 404㎡ 매매 8억
- ▶서구 마북동 생산농지 담 5,400㎡ 매매 21억
-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리지역 전 29,800㎡ 41억
- ▶북구 용두동 1중주거지역 내대지 2,050㎡ 매매 6.9억
- ▶화산 동면 계획관리지역 전, 임야 17,200㎡ 매매 2.5억
-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전 17,000㎡ 매매 5.2억

기타

- ▶세하동 창고 1,590㎡(건234㎡) 매매 7.2억
- ▶영암 삼호중공업 인근 주유소 매 8억(용 5억)

광주, 전남권 매도 매수 상담, 접수 환영합니다

서구 치평동 라인동산아파트 102동 앞 상가 109호
☎ 010-5536-0382 062) 373-0382

투자하라 권리금없는 프리미엄 입지

일대 010-8248-6001

분할·통합가능

1층 의류매장 / 금융기관 / 커피숍 핸드폰매장 / 편의점 / 약국 331.38㎡ / 76.42㎡

2층 의류매장 / 금융업소 커피숍 / 휴게음식점 593.17㎡ (±179.43평) **분할 가능**

3층 전문의원 안과·이비인후과 1164.9㎡ (±352.38평) 365.58㎡

4층 치과·피부성형과 사무실 / 학원 216.87㎡ 582.45㎡

5층 아스터어학원 유튜엠수학학원 **임대확정**

상무지구 BYC건물 맞은편

公告

利川徐氏 尙書公 大同譜 編纂

(이천서씨 상서공(감무공) 대동보 편찬)

壬子譜 (1972년 발간) 이후 42년 만에 대동보를 편찬 합니다

- 책으로 된 대동보는 이번이 마지막이오니 후손들은 빠짐없이 참여 바랍니다.
- 2011년말부터 공고(홍보)를 하였으며 2014년 3월 30일 수단 접수를 마감 합니다.
- 아직까지 접수 못 한 종친에게 널리 알려 편찬에 적극 참여토록 협조바랍니다.

兵部尙書公 編纂事務所

서울 TEL. 02-793-8252 FAX. 02-795-1831
광주 TEL. 062-672-2002 FAX. 062-672-2001